



Candidates must complete this page and then give this cover and their final version of the extended essay to their supervisor.

Candidate session number			
Candidate name			
School name			
Examination session (May or November)	MAY	Year	2015

Diploma Programme subject in which this extended essay is registered: KOREAN A GROUP 1 Cat-1  
(For an extended essay in the area of languages, state the language and whether it is group 1 or group 2.)

Title of the extended essay: 예술가 문학인 시인의 삶은 시대의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특히 민족의 암흑기였던 일제하 시인들은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Candidate's declaration**

*This declaration must be signed by the candidate; otherwise a mark of zero will be issued.*

The extended essay I am submitting is my own work (apart from guidance allowed by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 have acknowledged each use of the words, graphics or ideas of another person, whether written, oral or visual.

I am aware that the word limit for all extended essays is 4000 words and that examiners are not required to read beyond this limit.

This is the final version of my extended essay.

Candidate's signature: \_\_\_\_\_ Date: 29 JAN 2015

**Supervisor's report and declaration**

The supervisor must complete this report, sign the declaration and then give the final version of the extended essay, with this cover attached, to the Diploma Programme/coordinator.

Name of supervisor (CAPITAL letters) \_\_\_\_\_

Please comment, as appropriate, on the candidate's performance, the context in which the candidate undertook the research for the extended essay, any difficulties encountered and how these were overcome (see page 13 of the extended essay guide). The concluding interview (viva voce)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These comments can help the examiner award a level for criterion K (holistic judgment). Do not comment on any adverse personal circumstances that may have affected the candidate. If the amount of time spent with the candidate was zero, you must explain this, in particular how it was then possible to authenticate the essay as the candidate's own work. You may attach an additional sheet if there is insufficient space here.

최유림 양은 일제시대의 한국문학을 EOC 주제로 삼고 심사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제가 너무 막연하였기 때문에 보인이 다룰 수 있는 수준의 주제를 결정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차례의 상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제하 한국 문학의 두 가지 경향 - 순수와 저항'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고 에세이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세이의 진행 과정을 검토해 본 결과 자신의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단지 기술하는 방향으로 중이 전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의 자신의 의견이 뚜렷이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시인은 시대의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주제로 삼아 에세이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김소월, 김연남의 초개작과 후기작을 비교하는 내용이 충실이 되었고 일반적인 주제 이기는 하지만 고등학생 으로서는 비교적 완성도 있는 에세이를 작성하였다고 평가합니다.

This declaration must be signed by the supervisor; otherwise a mark of zero will be issued.

I have read the final version of the extended essay that will be submitted to the examiner.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 extended essay is the authentic work of the candidate.

As per the section entitled "Responsibilities of the Supervisor" in the EE guide, the recommended number of hours spent with candidates is between 3 and 5 hours. Schools will be contacted when the number of hours is left blank, or where 0 hours are stated and there lacks an explanation. Schools will also be contacted in the event that number of hours spent is significantly excessive compared to the recommendation.

I spent  hours with the candidate discussing the progress of the extended essay.

Supervisor's signature: \_\_\_\_\_ Date: Jan. 30. 2015

**Assessment form (for examiner use only)**

Candidate session number		
--------------------------	--	--

**Achievement level**

Criteria	Examiner 1 maximum	Examiner 2 maximum	Examiner 3
A research question	2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value="2"/>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B introduction	2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value="1"/>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C investigation	4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value="4"/>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4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value="3"/>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E reasoned argument	4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value="2"/>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F analysis and evaluation	4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value="2"/>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G use of subject language	4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value="4"/>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H conclusion	2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value="2"/>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I formal presentation	4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value="2"/>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J abstract	2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value="1"/>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K holistic judgment	4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value="2"/>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type="text"/>
Total out of 36	<input style="width: 60px; height: 3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60px; height: 30px;" type="text" value="25"/>	<input style="width: 60px; height: 30px;" type="text"/>

Name of examiner 1: \_\_\_\_\_ Examiner number: \_\_\_\_\_  
(CAPITAL letters)

Name of examiner 2: \_\_\_\_\_ Examiner number: \_\_\_\_\_  
(CAPITAL letters)

Name of examiner 3: \_\_\_\_\_ Examiner number: \_\_\_\_\_  
(CAPITAL letters)

IB Assessment Centre use only: B: \_\_\_\_\_

IB Assessment Centre use only: A: \_\_\_\_\_

목 차

\* No cover page

\* <sup>2010</sup> 701 번지 앞쪽

\* No candidate number on the ~~right~~ <sup>right</sup> hand top cor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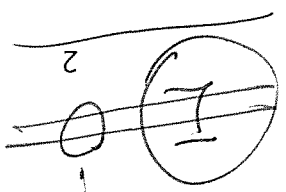
- ◆ 요약.....2
- ◆ 서론.....3
  - 순수를 옹호하는 입장.....4
  - 참여를 주장하는 입장.....5
- ◆ 일제 암흑기의 시대적 상황과 작가들의 문학적 경향.....6
  - 시대별 시인들의 대응 양상 - 순수와 참여의 대표적 시인들.....7
- ◆ 1920~30 년대의 순수시 : 김소월, 김영랑.....8
- ◆ 일제 말기의 저항시 : 윤동주, 이육사.....14
- ◆ 순수시 속에 담겨있는 현실의 세계 : 김소월, 김영랑.....22
- ◆ 결론.....26
- ◆ 참고 문헌.....28

요약 (Abstract)

문학에는 순수와 참여라는 두 가지 양상이 존재한다. 우리 문단에서의 이러한 논쟁은 1960 년대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었다. 하지만 20 세기 초에도 이러한 논쟁은 존재하였다. 한국 역사의 안후기였던 일제 강점기의 현전 속에서 시인들은 순수와 참여이라는 두 개의 권 위에서 각기 그들의 문학 세계를 전개했다. 극한의 현전 세계가 시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글

의 목적이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시인들인 김소월, 김영랑, 윤동주, 그리고 교육사의 시를 예로 들어 보면, 김소월과 김영랑은 순수를 지향하였던 대표적 서정시인들이며 윤동주와 교육사는 일제에 대항하였던 대표적 저항시인들이다. 교육사와 윤동주의 시들은 대부분이 저항시이며 일제의 억압에 대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시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시인들로 분류될 수 있다. 순수를 지향하였던 김소월과 김영랑의 시를 살펴보면 때때로 시정서를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의 현전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순수시는 현전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 가 아닌 현전을 전제로 쓰인 시였음을 그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순수와 참여를 떠나 모든 문학인의 삶과 작품은 시대의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순수주의와 참여주의)  
순수주의와 참여주의

현전

윤동주

현전

Research Question: 예술가 문학인 시인의 삶은 시대의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특히 민족의 암흑기였던 일제하 시인들은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 Title과 동일

## 서론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에는 순수와 참여라는 두 경향이 존재한다. 예술이 미를 창작한다는 본래의 사명에 충실한가 아니면 예술을 다른 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하는가에 의해 순수성과 참여성의 개념은 결정된다. 예술을 미의 창작 활동으로 영위하는 것이 순수성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참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혀 다른 두 견해는 오랜 기간 논쟁을 벌여왔으며 이 논쟁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sup>1</sup>

최초의 논쟁은 1963년 김우중이 <파산의 순수문학>이라는 글을 통해 당시 만연되고 있던 순수문학을 '고통으로 가득한 민중의 삶을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순수와 결별할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이 글에 공감한 김병걸은 <순수와 결별>이라는 글을 발표하였고 앙드레 말로, 사르트르 등 서양 참여 문학의 대가들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현실참여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크리?

Citation?

이 논쟁은 해방 이후 최초로 '문학은 곧 순수문학'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현실 참여문제를 문학의 중요 요소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문단 내에서는 현실참여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수용되면서 그 방법을 둘러싸고 논의가 전개

<sup>1</sup> "순수소설 (출처: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순수소설 : 지식백과 14 Aug 2014

한국학의 유미주의는 극히 단편적으로 드러나지만, '미' 그 자체가 시나 소설의 문  
 학의 원천으로서 김영랑과 이효석 등 여러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다는 점에서 많은 지기와 공간을 얻었다. 우리 문학에서의 유미주의는 순수문  
 학예측에서는 인생적, 윤리적 의미를 배제한 순수화의 경향 등을 존중하고 신앙  
 들을 위한 예술, 인생관으로서 인생에 대하여 관조적, 은둔적, 소극적 태도, 문  
 20세기에 예술이나 문학에서 다만 미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예술관으로서는 예  
 비침미적 기풍에 의하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미주의는 19세기와  
 어떠한 이면적 목적이 그 속에 내포되어서는 안되고 윤리적, 정치적, 또는 다른  
 유미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유미주의는 예술은 그 자체로서 자족한 것이며  
 을 기쁨을 발견시켜 특유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순수문학은  
 술의 독립적 가치를 명시한 예술지상주의는 예술의 독자성을 인정받고 소설 시화  
 지 그 밖의 '문장'이나 '순문예'를 중심으로 하는 순수문학론에서 볼 수 있다. 예  
 '순수문학'이라는 용어의 대두는 1930년대의 시문학파의 순수적정시론<sup>2</sup>이래는

**순수를 옹호하는 입장**

원리를 문학론 탄생시키는 주요한 토대가 되었다?  
 문학 사회의식의 발전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쟁은 이후 70년대의 리  
 옹미했던 실존주의의 현실참여론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분절적으로는 4.19를  
 터다가 1968년 이아령과 김수영의 논쟁으로 계연되었다. 순수참여논쟁은 당시를

3 "유미주의 (출처: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유미주의: 지식백과 28 Dec 2014 .  
 4 "참여문학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여문학: 지식백과 14 Aug 2014 .

이 많이 드러나 있다.

— 기성적  
 — 영국의 가치?

✓ 영미주의  
 기성적 가치

의 사회적 참여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sup>4</sup>  
 순수참여논쟁은 1969년대에 시작되었지만 한국 문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  
 전에도 존재는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다루고자 하는 시인들의 시매체적  
 배경인 1910-1950년대에서도 이 두 가지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김소월과  
 권영랑의 시에서는 순수성이 드러나 있으며 윤동주와 이육사의 시에서는 참여성

참여문학은 순수문학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되며 원천에 비판적이고 사회변형에  
 원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학이념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참여문학  
 에서는 작가의 창작성을 통해 나타나는 작가의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응징시  
 기는데 이는 문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문학을 통한 유토피아적 지향을 표현하  
 려는 원천적 문학관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문학은 우리 문학사의 전통인 양 반  
 아를여지던 보수적인 순수문학에 대한 반성이며 누구를 위해서 또한 무엇을 위  
 해서 문학을 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탐구이다. 참여문학은  
 허황된 구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작품을 쓰는 일을  
 강조하며 또한 작품에 반영되어야 하는 시대적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참여문학  
 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이며 4.19혁명 이후 문학

참여를 주장하는 입장

원천 측면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sup>3</sup>



분류  
↓

## 일제 암흑기의 시대적 상황과 작가들의 문학적 경향

1910년 8월 국권피탈로 대한제국이 사라진 이후부터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식민통치를 당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수장들을 모두 일본인으로 임명하였으며 법률 또한 일본인에게 지극히 유리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한국에 조선총독부를 만들어 일본의 사상으로 한국의 모든 것을 관리하였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식민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선 교육령'에 의하여 한국어 수업보다는 일본어 수업을 권장하여 일본어 사용을 일반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일방적 탄압 속에서 이에 대항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은 전국적인 항일독립운동으로서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운동이었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큰 타격을 가했고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완화된 문화적 통치 경향으로 인해 한국에는 문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반기에는 이광수의 계몽 문학에 대항하여 순수 문학을 주장하였던 김동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당대의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려 했던 사실주의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였으며 후반기에는 계급주의 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시문학 또한 크게 부흥하였는데 식민지에 살고 있다는 자의식과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이 함께했던 시대의 재능 있는 시인들이 현대 시사의 초석이 되었다.

우리는  
2cent m  
look!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전쟁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국력의 소진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을 전쟁물자 보급 창으로 사용하고자 이른바 '병참기지화' 정책을 펴나가면서 이를 위한 식민지를 아예 일본의 일부로 만들려는 민족 말살정책을 수행해나갔다. 한국인을 일본일과 동일한 민족으로 만

5 한국민중문화대백과, '형제강림기' 21 Aug 2014 ✓  
6 "한국문학 (총서: 두산백과)" 한국문학 : 지식백과 21 Aug 2014

공  
)

새로운 양상  
의 등장

형은의 시인들이 그 예이다.

참여성이 많이 묻어있는 시를 쓴 것을 볼 수 있다. 이육사, 윤동주, 그리고 신동  
률만의 시를 썼었다. 6 하지만 1940년부터 1960년까지의 시인들의 성향을 보면  
각자 이상향을 동경하는 내용과 인간에 근원적인 생명력이 드러나는 내용 등 그  
서정시의 대표시인이다. 1930년의 신석정 시인이거나 서정주 시인을 보면 그들은  
주로 발표하였다. 1920년의 시인 중 한명인 김소월은 민족 고유의 한류 노래한  
1920년부터 1930년까지의 시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색을 표현하는 순수시를

### 시대별 시인들의 대응 양상 - 순수와 참여의 대표적 시인들

를 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민족이 같다는 동조동근론을 주장하였고 일본과 한국은  
하나라는 내선일체를 내세웠다. 제도적으로도 한국을 만찬시키기 위해 한류로 된  
이들을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였으며 일본어를 국어로 지정하여 학교에서  
일상에서든 무조건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 5 이 때는 한국의 문화적, 문  
학적 양화가였다. 동아 일본, 조선일보 등 다수의 신문사들이 폐지 당하였고 일본  
의 한국의 역사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의해 당시 많은 애국적인 역사가 탄생하였다.

## 1920~30년대의 순수시: 김소월, 권영완

### 순수시

순수시는 외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언어의 미적 기능만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시이다. 순수시는 정치적이나 사회적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의견이나 터내지도 않는다. 순수시의 목적은 시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있으며 이렇기 때문에 순수시는 경향문학에 정면으로 반한다. 순수시의 특징은 언어의 선택이 매우 엄격하며 영물한 언어의미를 추구하고 세련된 기교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장각적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 또한 순수시의 특징이다?

### 김소월

김소월은 서정시의 대표시인으로서 시적 활동은 1920년 <광주>에 시, '내인의 물', '야의 우적', '오과외 탐', '중강', '음릉' 등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작품 발표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22년이며 주로 <개벽>을 통해 활약하였고 이 무렵 김소월의 여러 대작들이 발표되었다. 김소월은 정물적인 한의 정서를 여성적 정조로서 민요적 용조와 민중적 정감을 포괄한 민요시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8 시인 김소월의 대표작 중 하나인 '진달래꽃'에는 이러한 시인의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다.

7 "국문학사(國文學史)(1) [총서] 국문학사(國文學史)(1) 작성자 재봉을" 재봉을 19 Sept 2014 /  
8 "김소월 (총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김소월 : 지식백과 19 Sept 2014



1925년에 발표된 4연 12행의 간결한 형식의 이 시는 김소월의 시의 정수로 이별의 슬픔을 의지력으로 극복해 내는 여인용 시적 자아로 하여 전통적 정환풍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김소월의 대부분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듯이 이 시에서도 여성적인 어조가 드러나 있고 아름답고 짙은 느낌을 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며 진멸하고도 날카롭게 절근하고 있



이별의 슬픔을 의지력으로 극복해 내는 여인용 시적 자아로 하여 전통적 정환풍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정환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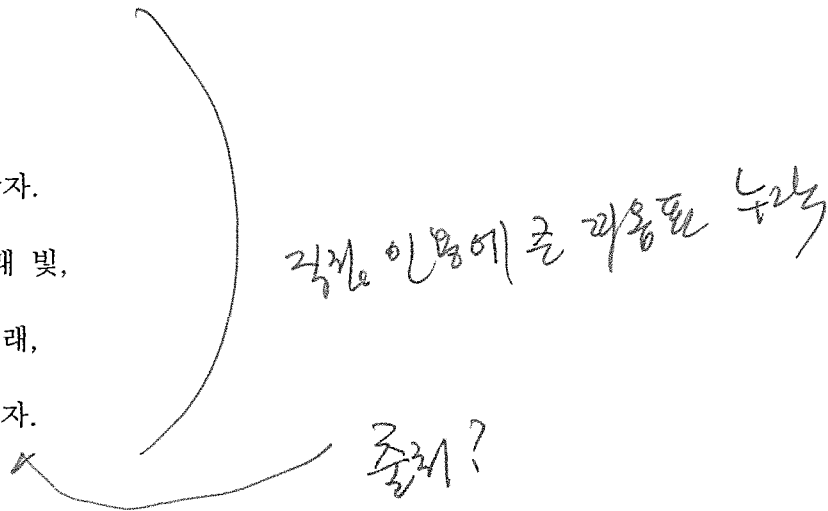
죽어도 너를 고통스러우려다.  
 가련 때에는  
 나 보기가 역겨워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죽은 그 꽃은  
 가시는 걸음결음  
 어들따다 가련 길에 뿌리우려다.  
 진달래꽃  
 영원의 약산  
 람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려다.  
 가련 때에는  
 나 보기가 역겨워

진달래꽃

이 시가 발표된 1925년은 이미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때였다. 하지만 김소월은 서정시인으로서 시대적 의식에 영향 받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을 지켜나가며 민요시 라고도 불리는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엄마야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는 김소월 시인의 또 다른 대표작중 하나이다. 이 시는 한 소절의 짧은 글이지만 그 울림이 한국의 모든 그리움의 정서를 담고 있다. 엄마와 누나라는 단어가 주는 한국적 정서와 고유의 깊은 그리움이 아름다운 동심을 그려내고 있다. 이 시 또한 1922년에 발표된 것으로 일제의 점령하에 쓰여진 것이다. 하지만 ‘엄마야 누나야’는 한국 고유 정서적 그리움을 그려내 민족 정신을 깨운다는 점을 제외하면 김소월의 다른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조의 부드러운 시이며 서정적이고 민요적이고 동요적이다<sup>10)</sup>

완로 이주원 19 Sept 2014

<sup>10</sup> "낙타문.한국 : 네이버 블로그." 낙타문.한국: 네이버 블로그 19 Sept 2014 ✓

## 김영랑

김영랑은 1930년대 시문학과와 대표적 시인으로 계몽 문학과 목적주의적 경향파의 문학에 반발하여 문학 자체의 순수성을 추구했다. 그는 시의 음악성을 강조하고 순수 서정시, 세련된 언어 감각을 중시하였던 시인으로 김소월 이후 우리말 구사에 가장 뛰어난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을 정도로 섬세하고 깨끗한 서정시를 많이 발표하였다. 지나치게 개인의 내면 세계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우리 시를 언어와 형식 면에서 한 차원 올려놓은 것은 명백한 그의 업적이다.<sup>11</sup>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툭툭 떨어져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큰 깨움의 순간

졸리?



<sup>11</sup>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작품연구 (김영랑) 24 Sept 2014 ✓

떨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크레 ?

1934년 <문학>에 발표된 이 시는 시인의 내면적 마음을 노래하고 있으며 모란을 제재로 삼아 다가올 찬란함을 희망적으로 기다리는 내용을 담았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김영랑 시인의 자연을 통한 순결성이 보이며 아름다운 시어는 시인의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김영랑은 분명히 순수 서정시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그의 많은 시가 의미를 크게 강조하거나 관념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언어의 미적 구조와 음악성에 치중한다는 점, 그리고 '내 마음'이라는 주관적 감정의 표출에 몰두한다는 점에서는 서정시에 가깝기 때문이다.<sup>12</sup>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sup>12</sup>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24 Sept 2014

13 김영랑: '돌담에 축삭이는 햇볕' 24 Sept 2014  
14 "돌담에 축삭이는 햇볕" (출처: 두산백과) "돌담에 축삭이는 햇볕" 25 Sept 2014

기분 약간 우울함



1930년에 발표된 이 시는 지상의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 즉 하늘을 동경하는 마음을 그리고 있는 서정시이다. 1930년대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밝고 평화로운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을, '돌담에 축삭이는 햇볕', '꽃 아래 웃음짓는 샹들', '시의 가슴에 샹포시 쫓는 물결'과 같은 어휘로 나타내고 있다. '과', '막', '음유음' 등 반복하여 순수서정의 언어미를 찬찬히 맛보도록 평가 받는다.<sup>14</sup>



김영랑 시

오름 하늘을 우러르고 있다  
새악시 물에 떠오르는 부끄럼이  
시의 가슴 샹포시 쫓는 물결만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향해 흐르는  
선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sup>13</sup>



지고 있으며 현실에 대한 철저한 내면적 인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구도자 내지

저항시는 비극적 상황에서 그 상황에 양력을 가할 수 있는 도구라는 특징을 가

작을 지혜롭게 담은 시를 '저항시'라고 한다.

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며 쓴 시, 또는 일제 세력에 저항의

에 저항한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식민지 시대에서 일제 세력에 대응

라고 할 수 있고 소극적 저항은 일문의 법과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문

일문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며 비판하고 역사의식을 담은 문장을 쓴 작가들이

으로 저항한 경우와 소극적으로 저항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적극적 저항은

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중 후자를 선택한 작가들은 적극적

이 있었는데, 일문의 교육에 동조하여 이의 보급화를 돕는 것과 목숨을 걸며 일

며 '조차도 빼앗겼다. 이러한 일제치하에서 한국의 작가들은 두 가지의 선택권

지 정책에 의해 모든 신문들이 폐간되었고 그 때문에 시를 발표할 지면도 없었으

일문제국의 점령하에 있던 35년간 한국의 문학은 멈추어 있었다. 일문의 차민

추진했던 일문에 맞서는 방법으로 한국인들은 저항문학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아닌 그것에 대응하며 거스른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문학과 문화의 탄압을

저항이라는 말은 어떠한 것에 대한 항거를 뜻하는데 이는 어떤 일을 방관하는 것

우리 문학에서 저항문학은 일반적으로 일제 치하에서의 항일 문학을 일컫는다.

### 저항시

### 일제 란기의 저항시: 윤동주, 이육사

예언자적인 자세로 표현하여 정신적인 시의 영역을 구축한다.<sup>15</sup>

### 공몽주

공몽주 (1917~1945)는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

립의 절절한 소망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전주어 노래한 민족시인이다. 공

몽주의 시 세계가 본격적으로 형사화 되기 시작했던 때는 그가 연회 전문에 입하

한 1938년부터이다. 이 때에 공몽주는 민족의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확고

한 자신의 시 세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연회전문을 중단한 때문에 확고한

자신의 뜻을 확인한 그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엮으며 자신은 것

를 읽던 역사의 무게를 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시작했다.

공몽주도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서시'이다.

###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연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피포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권을

간격을 늘려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sup>16</sup>

1941년에 지어진 이 시는 윤동주의 유고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되었다. '서시'에서는 시인의 부끄러움과 결의를 담고 있다. 윤동주의 많은 시에서 찾아볼 수 있듯 처음에는 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반성이 보여지지만 끝은 굳은 다짐과 결의로 맺어진다.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시인의 자기 극복과 초월의 노력에 의해 일궈낸 발전이다. 단순한 감수의 태도가 아니라 그 극복과 초월에 목표를 둔 작품이라고 할 때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시인 이 작품은 시집의 전체적인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며 존재론적 고뇌를 투명한 서정으로 이끌어 올림으로써 광복 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유고 시집으로 광복 후에 출간되었다.) 현실에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아름다운 감동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클릭?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있습니다.

<sup>16</sup> "윤동주." 시가 있는 마을. 25 Sept 2014

<sup>17</sup> "서시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서시 : 지식백과 27 Sept 2014

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 소리도 들려 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피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큰 피음의 눈물

조용히?

이 시 또한 1941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작품으로 십자가를 제재로 삼아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뺏긴 고달픈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만 쓰는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한 죄책감을 그린 시이다. 운동주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 '십자가'를 포함한 여러 작품에서 그의 기독교에 대한 종교관을 드러내었다. 이 작품에서도 '자기 희생'을 실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자신도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었다.

다. 18

18 "십자가 - 운동주." 별빛 나라 시화 감상 27 Sept 2014

인주

운동주는 일제강점기에 유년기와 성장기를 보낸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많은 시는 나라에 대한 헌신과 자기희생의 정신을 담고 있고 광복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있다. 비록 29세의 나이에 일본에서 옥사하였지만 그는 아직도 ‘항일 저항시인’이라고 널리 불리 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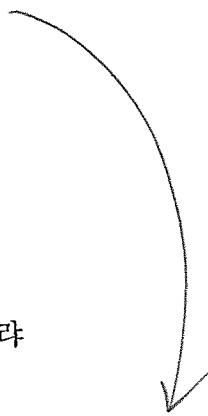
### 이육사

본명 이원록 (1904~1944)의 이육사는 시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단체에 가입해 적극적 독립운동을 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투항 중 옥살이를 한 적도 있으며 만주와 중국 등 여러 곳을 다니며 정의부, 군정부, 의열단 같은 여러 독립운동단체에 가담하여 독립투쟁을 벌였다. 그의 첫 작품은 1935년에 <신조선>에 발표한 ‘황혼’이었다. 그의 시는 식민지 하의 민족적 비운을 소재로 삼아 강렬한 저항 의지를 나타내고 꺼지지 않는 민족정신을 장엄하게 노래한 것이 특징이다. 이육사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극복하려 했던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서 그의 시는 무엇보다도 투철한 현실 인식과 강한 신념에서 비롯된다.<sup>19</sup>



###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sup>19</sup> "이육사 (출처:한국현대문학대사전)." 이육사 : 지식백과 29 Sept 2014

← 오기

이 용사의 '광야'는 상징과 비유적 기법을 통하여 시어의 의미를 형상화 하고 있  
 으며, '파가-현재-미래'의 순차적 시간 흐름을 따라 사상을 전개한다. 작가는 작  
 품에서 신성한 태초의 역사 속에서 시작하는 광야가 비록 현재에 비극적 현실을 맞  
 이하였지만 반드시 희망적 미래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회생할 것임  
 을 다짐하고 있다. 이 용사는 극명한 현실 인식과 조국 역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있었기에 자기 희생이 가능하였고 저항적, 지식적 결의가 가능하였다. 광  
 야'에 드러난 강렬하고도 단상적인 시어들은 이러한 주제 의식을 형상화 하기 위



주제 ?

주제 : 민족의 구원

이 광야에서 북쪽이 북으로 부르며 하리라  
 백마 타고 오는 주인이 있어  
 다시 권고의 뒤에  
 내 역사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매화 향기 홀로 아늑하니  
 지금 눈 내리고  
 큰 강물이 비포조 권을 열었다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주인없는 광야를  
 차마 이곳을 변하지 못하였으리라  
 바다를 연모해 회담할 때도

시인 이육사의 유고시집인 <문장>에 실린 또 다른 대표적인 '월정'이 다. 1940년에 수록된 이 시는 암담한 식민지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조극하려는 시인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도 이육사의 특유의 낭성적이고 강렬한 어조가 돋보이며 자기 관조의 여유, 가열차고 준엄한 선비의 자세, 그리고 대목적이고 당당한 목소리를 통해 시인의 사상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다. 현실

문장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이러매 눈 갠아 새가해 불밖에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어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서릿발 쫓던 건 그 위에 서다.

하늘도 그만 지쳐 문단 고원

마침내 북방으로 휘둘러 오다.

매공 계절의 채찍에 관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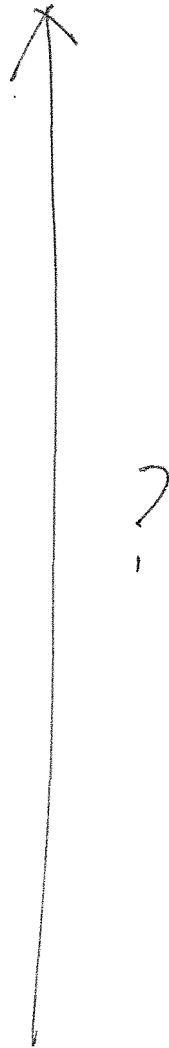
월정

문장을 단락

한 시인의 의도를 담고 있다 (20)

적 삶이 위축되어 극한의 상황에 처하였을 때, 비로소 새롭게 확대된 삶을 위한 전기가 마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수난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일체에 대한 저항의식을 담은 대표적인 그 시대의 저항시이다.<sup>21</sup>

일제 강점기에 시적 활동을 한 윤동주와 이육사는 가히 일제시대의 대표 저항 시인이라 불려질 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시들을 썼으며 식민지 시대의 비참함에 애통하며 현실에 대항하는 여러 작품들을 남겼다.



---

<sup>21</sup> "절정 (출처: Basic 고교생을 위한 문학 용어사전)" 절정 : 지식백과 27 Sept 2014



## 순수시 속에 담겨있는 현실의 세계: 김소월, 김영랑

일제 말기의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운동주와 이육사는 이처럼 치열하게 현실에 저항하는 작품들을 남겼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순수를 지향하였던 김소월과 김영랑의 작품 세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그들의 후기 작품인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어더라면'과 '독을 차고'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이처럼 떠돌으라,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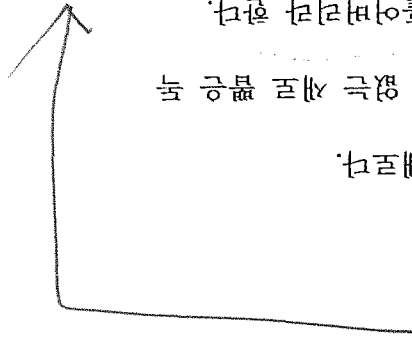
내 몸은 떠가나니, 불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 다리에.

큰 희망은 두렵

내 가슴에 독을 잔지 오래포다.  
아직 아무도 없는 해한 일 없는 새로 붉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틀어버리라 한다.



독을 차고

포함시켰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보듬매린 땀이 있었더라면은 김소월이 1925년에  
발표한 시집 <진달래꽃>에 실린 시이다. 본 시는 다른 김소월의 시와는 달리 의  
지에 찬 담성적 어조이며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sup>22</sup> 이를  
다음 시어들과 자연을 담은 내용은 김소월 시인의 순수적 성향을 확실히 나타내  
고 있지만 현실을 완벽히 배제해야 한다는 순수의 원칙과는 달리 시인은 현실을

김소월 ?

저 저 혼자..... 산경을 건 메이는.

표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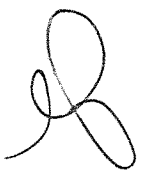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는 나아가리라

자칫 가느른 현이 이리가라.

툼포 나뉘이 내 앞에는

그러나 어찌면 황송한 이 산경을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어도 머지 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덩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 말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큰 대충들 낚  
J

중리?

일제강점기에도 아름다운 필치로 잔잔한 서정시를 쓰던 김영랑은 1939년 ‘독을 차고’라는 사뭇 다른 긴장감이 느껴지는 시를 발표하였다. 이 시는 항상 곱고 부드럽고 섬세한 순수 서정만을 추구해 온 시인의 시로서는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강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리 승냥이’를 피하지 못할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독을 차고’ 그 운명에 순순히 복종하여 자신의 ‘외로운 혼’을 건지겠다는 각오는 비장함을 느끼게 한다. 저항시로 분류될 수 있는 이 시에는 일제 말기 ‘찢기우고 할퀴우’는 상황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시인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sup>23</sup>

<sup>23</sup> "독(毒)을 차고 (출처: 한국현대문학대사전)." 독(毒)을 차고 : 지식백과 28 Sept 2014

중리 띄어쓰기

김소월과 김영랑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시적 활동을 한 시인들이다. 이들은 주로 순수시와 서정시를 발표하였으며 시대의 대표적인 순수를 지향한 시인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더라면'과 '독을 차고'와 같은 두 시인의 현실에 대한 강한 저항적 의지가 담겨 있는 시들을 볼 때 그들의 시가 온전히 순수만을 지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inally opinion!



?

## 결론

문학에는 두 가지 양상이 존재한다. 이는 순수와 참여이다. 오랜 기간 동안 문학인들은 이 둘의 개별성과 영향력에 대해 논쟁을 해왔고 그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논쟁의 주요 요점 중 하나는 순수와 참여는 엄연히 다른 부류에 속하며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요점을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하에 살펴보았다. 일제 강점기라는 전 민족의 수난기에도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순수나 참여의 시인의 개별적 성향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일제하 순수는 당시의 주위 환경에 연루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시인의 사회적 개입을 보여주지 않는 정통 순수시를 쓰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참여는 환경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 영향을 시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론에서 다룬 네 명의 시인들은 이 두 가지 양상의 각각 속해있는 시인들이며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에 활동을 했던 시인들이다. 김소월과 김영랑은 순수 서정시인이며 그들의 거의 모든 작품들이 이러한 성향을 띄고 있다. 윤동주와 이육사는 지금까지도 일제하의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많은 저항시를 쓴 참여시인들이다. 그리하여 이들의 대표 작품들을 살펴보면 김소월과 김영랑은 순수를, 윤동주와 이육사는 참여를 지향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멈춘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지향하는 성향을 끝까지 굳건히 지켜온 작가들로 그칠 것이며 시인들은 시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 맺어질 것이다.

하지만 김소월과 김영랑은 이후의 시에서 현실을 드러내는 시들을 발표하였다. 현실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 순수를 지향해오던 그들이 말이다. 그러므로 이 두

서정시인들은 결국 시대의 현실에 영향을 받았다. 아무리 자신만의 지향하는 성향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도 현실은 사람의 생활의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들어가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문학인이라 할지라도 김소월과 김영랑과 같이 결국에는 영향을 받고 맡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순수이건 참여이건 모든 문학인의 삶은 시대의 현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근거 부족 개리

- 총체 누락 다함 ✓
- 7월 글자수 정도 (각각 인봉 제외)  
(7000 글자수 정도)

- No cover page .
- 오른쪽 상단에 candidate number. ✓
- 글자수 혹은 단어 X .
- 전체적으로 기존 자료 존함
- 학생의 의견은 매우 미비하게 되었음 .
- 분석의 노력은 보이지 않음 .

## 참고 문헌

- "순수소설 (출처: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순수소설: 지식백과, 14 Aug 2014
- "순수o참여논쟁 (출처: 한국근현대사사전)." 순수o참여논쟁 : 지식백과, 14 Aug 2014
- "참여문학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여문학 : 지식백과, 14 Aug 201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일제강점기' 21 Aug 2014
- "한국문학 (출처: 두산백과)." 한국문학 : 지식백과 21 Aug 2014
- "국문학사(國文學史)(1) [출처] 국문학사(國文學史)(1) 작성자 재봉틀." 재봉틀 19 Sept 2014
- "김소월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김소월 : 지식백과 19 Sept 2014
- "진달래꽃 - 김소월." 아름다운 마음의 시/ 세상을 여는 지혜 [출처] 진달래꽃 - 김소월 작성자 완로 이주원 19 Sept 2014
- "낙타문.한국 : 네이버 블로그." 낙타문.한국: 네이버 블로그 19 Sept 2014
-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작품연구 (김영랑) 24 Sept 2014
-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24 Sept 2014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24 Sept 2014

-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출처: 두산백과).”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지식백과 25 Sept 2014
- “綵雲齋.” 綵雲齋 11 Sept 2014
- “윤동주.” 시가 있는 마을. 25 Sept 2014
- “서시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서시 : 지식백과 27 Sept 2014
- “십자가 – 윤동주.” 별빛 나라 시화 감상 27 Sept 2014
- “이육사 (출처: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이육사 : 지식백과 29 Sept 2014
- 이육사 광야 (지문해설) 29 Sept 2014
- “절정 (출처: Basic 고교생을 위한 문학 용어사전)” 절정 : 지식백과 27 Sept 2014
- “For You: 김소월 – 바라건대는.” For You : Poem 28 Sept 2014
- “독(毒)을 차고 (출처: 한국현대문학대사전).” 독(毒)을 차고 : 지식백과 28 Sept 2014